

서울반도체, 백색 LED 중국 특허

2001년 9월 출원기술 특허 취득 ... 불법사용 강력저지 매출 확대

서울반도체는 “2001년 9월 중국에 출원했던 백색 LED(발광다이오드)의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다”고 4월6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와 미국에 이어 다시 세계 최대의 휴대폰 생산기지이며 시장인 중국에서도 특허를 추가하게 됐다.

백색 LED는 가전제품의 디스플레이, 휴대폰, PDA, LCD 등의 백라이트 광원용과 자동차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 10조원의 세계 조명램프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세계시장에서 백색 LED 특허를 보유한 곳은 일본의 니찌아, 도요다고세이, 미국의 루미엘이디, 독일의 오스람 등 일부에 그치는 등 특허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중국특허 획득으로 중국시장 매출 확대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중국은 일부기업들이 특허를 침해하며 불법적으로 백색 LED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경고장 발송과 소송 등을 통해 특허를 보호하고 매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4/08>